

# 공예정권의 나주진출과 수군활동

愼 成 宰

(해군본부)

1. 머 리 말
2. 政權 초기의 정치·군사 상황과 나주
3. 弓裔政權의 나주진출과 海上統制戰의 전개
4. 德津浦海戰과 후삼국의 정세 변화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나주는 弓裔政權이 가장 관심을 갖고 군사활동을 추진한 지역이었다. 後百濟 역시 이곳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세력을 확장하는 초기부터 정벌을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토착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뒤늦게 군사작전을 실시한 공예정권이 水軍을 이용하여 진출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후 후백제와의 德津浦海戰에서 승리한 뒤로는 지배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王建이 집권하는 고려

왕조로 이어졌고, 마침내는 후백제왕 甄萱이 이곳을 통해 귀부하게 되면서 일단락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나주는 궁예정권 초기부터 군사활동의 핵심 지역으로 중시되었던 동시에 후삼국시대의 종말을 가져온 상징적인 곳이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논의에서도 나주지역에 대한 군사활동은 주목되는 대상이었다. 그 결과 水軍(舟師)<sup>1)</sup>의 활약상이 부각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군장수로 활약하면서 고려 건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왕건의 정벌 활동과 세력기반의 형성 과정, 정치적 성장 등과 맞물려 많은 해명 작업이 이루어졌다.<sup>2)</sup> 이어지는 성과에서도 나주지방에 대한 군사작전을 주목하거나,<sup>3)</sup> 나주진출의 근간으로 기능한 수군에 대한 군제사적 위치와 성격을 규명하는가 하면,<sup>4)</sup> 왕건의 후삼국통일전략에 관심을 둔 군사정책과 전략적 차원의 연구가<sup>5)</sup>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해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고려와 후백제간의 海洋主導權(制海權) 爭奪戰으로까지 이해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sup>6)</sup> 대체로 관심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왕건과 고려

- 1) '水軍', '舟師', '海軍'의 용례가 모두 발견되지만, '水軍'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 2) 池內宏, 「高麗太祖の經略」, 『滿鮮史研究』 中世篇 2, 吉川弘文館, 1937; 海軍本部 政訓監室, 『韓國海洋史』, 1954; 海軍本部 政訓監室, 『韓國海戰史』 上, 1962; 崔碩男, 『韓國水軍史研究』, 鳴洋社, 1964; 朴漢高, 「王建世系の 貿易活動에 대하여」, 『史叢』 10, 高大史學會, 1965; 文暉鉉, 「王建太祖의 民族再統一의 研究」, 『慶北史學』 1, 慶北大學校史學會, 1979; 張學根, 『韓國海洋活動史』, 海軍士官學校, 1994; 鄭清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 3) 日野開三郎,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四)」, 『朝鮮學報』 20, 朝鮮學會, 1961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卷9: 東アジア國際交流史の研究(上), 三一書房, 1984]. 대륙세력과의 연결을 차단한 '海上交通貿易破壞作戰'에 주목한다.
- 4) 金南奎, 「高麗의 水軍制度」,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오봉근,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994.
- 5) 陸軍本部, 『韓國古戰史(2)』, 1976; 朴漢高,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政策」, 『史學志』 14, 檀國大學校史學會, 1980; 金州植·鄭鎮述, 「張保臯와 李舜臣 兩時代의 海洋史的 連繫人物 研究-王建 海上勢力의 成長과 羅州海戰을 중심으로」, 『海洋研究論叢』 25, 海軍士官學校, 2001.
- 6) 姜鳳龍, 「後百濟 甄萱과 海洋勢力-王建과의 海洋爭鬪를 중심으로」, 『歷史教育論集』 83,

가 중심이 된 서해안에서의 군사활동에 해양사적인 의미 부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존의 이해 방식에 좀더 주목해볼 점이 있다. 궁예정권이 추진하였던 군사활동을 놓고 그 휘하에서 수군장수로 활약한 왕건을 주체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高麗史』의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나주진출은 궁예정권이 후백제의 배후에 위치한 나주에 전략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후삼국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군사작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면 나주진출은 궁예정권이 마련한 군사전략의 틀 안에서 추진된 군사활동으로 재정리해 볼 여지가 있겠다.

이 점은 나주진출의 배경과 목적을 군사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초반 연구에서부터 후백제와 대륙세력간 海上交通貿易破壞作戰으로 이해하거나, 후백제의 대외 교섭로 차단과 배후 위협을 통한 군사적 견제 등을 논자들마다 중요한 배경으로 지적하였다. 나아가 궁예정권과 고려의 군사전략에 차이점을 부각시켜 설명하는가 하면,<sup>7)</sup> 왕건과 견훤간에 벌인 羅州攻防戰을 중심으로 시기별 軍事戰略의 변화 양상과 전술의 대응에 주목하기도 하였다.<sup>8)</sup> 그러나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전략의 내용과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근대 이후의 군사학적 관점을 토대로 입론을 전개하고 있어 일단 사실에 기초한 전략의 실체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수행된 수군작전과 전술적 운용, 德津浦海戰에 대해서도 분석할 점이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궁예정권의 나주진출과 수군활동에 대하여 戰爭史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歷史教育研究會, 2002; 姜鳳龍, 「羅末麗初 王建의 西南海地方 掌握과 그 背景」, 『島嶼文化』 21, 木浦大島嶼文化研究所, 2003; 문안식·이대석, 「왕건의 서남해지역 경략과 토착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혜안, 2004.

7) 궁예정권의 군사전략은 ‘대중국해상무역로의 차단’으로, 고려의 전략은 ‘후삼국통일전략’으로 평가하였다(陸軍本部, 1976, 앞의 책, 15~24쪽).

8)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71~176쪽.

2장에서는 공예정권 초기의 정치·군사 상황과 나주의 전략적인 가치를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공예정권의 나주진출을 계기로 수립되는 수군전략의 내용과 그에 따라 전개되는 海上戰의 양상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덕진포해전에서 수군의 활약상, 해전 전술, 해전의 승리에 따른 후삼국의 정세 변화 등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예정권의 나주진출과 수군 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2. 政權 초기의 정치·군사 상황과 나주

溟洲(강릉)에서 자립한 공예는 眞聖王 9년(895)에 猪足(인제), 狝川(화천), 夫若(김화), 鐵圓(철원) 등 10여 郡縣을 점령하여<sup>9)</sup> 세력을 확대하고, 이듬해에는 鐵圓城에 도읍하였다.<sup>10)</sup> 이후 건국의 기반을 다져간 공예는 내외에 관직을 설치하면서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였다.<sup>11)</sup> 비슷한 시기에 공예는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킬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松嶽(개성)에서 호족으로 활동하던 왕건 가문이 귀부를 요청해 오자<sup>12)</sup> 이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공예가 왕건 가문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해상세력 포섭이라는 정

9) 『三國史記』卷11, 眞聖王 9年.

10) 『三國遺事』卷1, 王歷1 後高句麗 弓裔.

11) 『三國史記』卷50, 列傳10 弓裔. 공예정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李貞信, 「弓裔政權의 成立과 變遷」,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1984; 趙仁成, 「泰封의 弓裔政權 研究」, 西江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1; 李在範, 「後三國時代 弓裔政權의 研究」, 成均館大學教博士學位論文, 1991; 趙仁成, 「弓裔의 勢力形成과 建國」, 『震檀學報』 75, 震檀學會, 1993; 丁善溶, 「弓裔의 勢力形成 過程과 都邑 選定」, 『韓國史研究』 97, 韓國史研究會, 1997 참조.

12)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乾寧 3年 丙辰. 朴漢高, 「後三國의 成立」,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78, 632~634쪽.

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 왕건 가문은 당시 예성강과 강화 일대에서 무역을 통해 확보한 부를 기반으로 정치적 성장을 도모해 가던 집안이었다.<sup>13)</sup> 궁예는 이처럼 정세 동향과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귀부해 온 용건을 金城太守로 임명하고, 왕건에게는 송악에 勃禦塹城을 쌓게 한 뒤城主로 임명하여 자신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은 것이었다.

왕건 가문의 귀부를 계기로 예성강 일대의 해상력을 확보하게 된 궁예정권은 지상전은 물론 수군활동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군사력 운용에 한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궁예정권의 과제는 새로이 확보한 해상력을 정치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여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궁예는 이를 위해 孝恭王 2년(898) 溟西道(황해도)와 漢山州(경기도) 관내의 30여 성을 접수하면서 송악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sup>14)</sup> 궁예가 철원을 벗어나 송악으로 천도한 것은 패서지역의 호족과도 연결을 도모하여<sup>15)</sup> 지배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왕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은 세력이 미약하여 궁예에게 귀부하였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sup>16)</sup>

패서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함과 아울러 궁예는 정권의 정통성을 표방하면서 지역민의 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맨 먼저 착수한 작업은 국호를 高麗로 정한 것이었다.<sup>17)</sup> 이 점은 궁예정권이 高句麗

13) 李龍範, 「處容說話의 一考察」, 『農檀學報』 32, 農檀學會, 1969, 19쪽. 귀부 당시 뚜렷한 기반이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河炫綱, 『高麗太祖와 開城』,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 133쪽), 지방 村主層 정도로 보기도 한다(李基東, 『新羅下代の 溟江鎮』, 『韓國學報』 4, 一志社, 1976;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228쪽).

14)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2年.

15)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支配勢力의 社會的 性格」, 『全南史學』 9, 全南史學會, 1995 (1996, 앞의 책, 199쪽).

16) 왕건의 세력 형성은 궁예 치하에서 이미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가 909년 단계와 913년에 발생한 阿志泰 사건을 주목하는 반면에 후자는 궁예왕의 신임에 의한 성장과 궁예 치하에서 왕건세력의 허약성을 지적한다. 종합 정리로는 李孝鍾, 「王建의 勢力 形成과 高麗 建國」, 『高麗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1~14쪽 참조.

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sup>18)</sup> 이와 동시에 궁예는 자신이 정통성의 근원으로 삼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 복수할 것임을 선언하였다.<sup>19)</sup> 이는 궁예를 중심으로 결집한 세력과 지역적 정서를 반영한 정치적 선언으로,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에게 작용하던 고구려 계승의식에 편승하여 반신라적인 분위기를 증폭시켜 신라를 정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궁예정권이 지향하던 군사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신라 인식에 특별한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신라정벌 중심의 군사정책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였다. 이것이 바로 명주 일대와 패서지방으로 지배력을 확장해 가던 단계에서 궁예정권이 지향한 군사정책의 기본틀이었다.

국내 정세에 비해 대외적 상황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나마 북방쪽은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여진족이 성장하여 활동하고는 있었지만, 거란족과 황하유역의 五代 세력, 회수유역의 南唐, 양자강 이남의 吳越이 상호 대치하던 형국이라 남방쪽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행사는 불가능한 처지였다.<sup>20)</sup> 동남쪽의 신라는 지방세력의 공공연한 도전으로 통치력이 거의 붕괴될 지경이었다. 인접한 후백제는 신라는 물론 궁예정권에게 최대의 위협이었다. 진성여왕 6년(892) 武珍州(광주)를 점령하며 동남 방면으로 팽창해 간 후백제는 여세를 몰아 신라 王京의 서남쪽에까지 진출하였고, 신라의 지배를 받아왔던 州와 縣들이 순차적으로 후백제의 수중에 떨어졌다. 完山州(전주)를 점령한 뒤로는 백제 부흥을 공공연히 표방하며 武州(광주)

17) 『三國遺事』卷1, 王曆1 後高麗 弓裔.

18) 李在範, 1991, 앞의 논문, 55쪽에서는 궁예가 세력기반의 중추부를 형성하고 있던 패서 호족을 의식하여 취한 결과로 보았다.

19) 『三國史記』卷50, 列傳 弓裔. “天復元年辛酉 善宗自稱王 謂人曰 往者新羅請兵於唐 以破高句麗 故平壤舊都鞠爲茂草 吾必報其讎 蓋怨生時見棄 故有此言 嘗南巡 至興州浮石寺 見壁畫新羅王像 發劔擊之 其刃迹猶在”.

20) 金哲堉, 「後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 『李相伯博士華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4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75, 369쪽).

와 완산주를 중심으로 하는 옛 백제 권역의 민심을 포섭해 나갔다. 드디어 효공왕 4년(900) 견훤은 후백제왕을 칭하고 관직을 설치하면서<sup>21)</sup> 본격적인 체제 정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sup>22)</sup>

이즈음 궁예는 北原(원주)의 적수 梁吉의 공격을 물리치고<sup>23)</sup> 정벌의 중심을 충청권역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견훤이 후백제왕을 칭한 뒤로는 정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廣州(하남), 忠州(충주), 唐城(남양), 淸州(청주), 槐壤(괴산)까지 정벌하였다.<sup>24)</sup> 그러나 무력적 정복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동일한 사실을 전하는 효공왕 4년(900)의 기록에는 당시 국원, 청주, 괴양 지방의 방위를 담당하던 賊帥 淸吉과 莘萱 등이 성을 들어 투항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5)</sup> 이러한 사실은 심한 교전을 피하는 가운데 지역 민심을 포섭하는 회유책을 병행하였음을 의미한다.<sup>26)</sup>

그런데 궁예정권의 충청권역 점령은 후백제로 하여금 군사방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강원도와 황해도에 집중되었던 궁예정권의 지배력이 충청지방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후백제의 戰鬥縱深이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청주지역의 호족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궁예에게 귀부하면서 궁예정권의 지지 기반을 형성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27)</sup> 그러나 호족의 귀부 문제도 중요한 변수였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나타난 군사적 대치 국면 역시 중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충청권

21) 『三國史記』卷50, 列傳10 甄萱.

22) 申虎澈, 『後百濟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3, 32쪽. 전략과 영역의 변천을 기준으로 나눈 견해에서는 892~900년간을 초창기로, 918~925년간을 정비기로 본다(金甲童, 『後百濟甄萱의 戰略과 領域의 變遷』, 『軍史』 41, 2000, 154~166쪽).

23) 『三國史記』卷12, 孝恭王 3年.

24)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光化 3年. “奮命太祖伐廣忠青三州 及唐城槐壤等郡縣 皆平之”.

25) 『三國史記』卷12, 孝恭王 4年. “國原善州槐壤賊帥淸吉莘萱等 舉城投於弓裔”.

26)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1985, 36쪽.

27) 鄭清柱, 『弓裔와 豪族勢力』, 『全北史學』 10, 1986; 申虎澈,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湖西文化研究』 10, 1992;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 地方勢力』, 『湖西文化研究』 11, 1993. 이상 申虎澈의 논고는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2001 및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개신, 2002 제IV장 참조.

역은 궁예정권과 후백제가 대치하던 경계선이면서 동시에 양국간의 王都를 공격할 수 있는 최단 主攻路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예정권의 충청권역 점령은 향후 후백제와의 대결 구도를 정예 병력이 장기간 대치하는 국면을 유발시켰다고 본다. 적어도 양국간의 최전방 전초기지인 청주와 昧谷(보은) 사이에는 상호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sup>28)</sup>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을 띠어갔다. 상호 수비 위주로 일관하였던 관계로 전투는 적었지만,<sup>29)</sup>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소모전의 형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새로운 군사활동의 돌파구 또한 요청되고 있었다.

대치 국면의 침묵을 먼저 깨뜨린 쪽은 후백제였다. 효공왕 5년(901) 견훤이 신라의 大耶城을 공격한 것이었다.<sup>30)</sup> 견훤이 신라를 공격한 것은 궁예정권이 고구려계승의식을 표방하면서 신라정벌 중심의 강경한 군사정책을 지향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백제 역시 건국의 정체성을 백제에 두고 신라에 대한 군사적 정벌을 선언하였기 때문이었다.<sup>31)</sup> 즉 양국간의 신라정벌 의지가 상호 경쟁적인 구도를 형성하던 상황에서 후백제가 선제 정벌을 감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백제의 대야성 공략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를 낳았다. 정벌에 성공하지 못하고 회군하던 견훤이 금성 남쪽의 연변 부락을 약탈하면서 지역민의 민심이 돌아선 것이었다.

견훤이 금성을 공략한 것은 단순히 대야성 정벌의 실패에 따른 분풀이성 차원은 아니었다. 그것은 견훤이 전주로 천도하는 900년 이전부터 나주 일

28) 申虎澈, 「弓裔와 王建과 淸州豪族」, 『中原文化論叢』 2·3, 1999, 73쪽.

29) 朴漢高, 1980, 앞의 논문, 56쪽.

30)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5年. “後百濟王甄萱 攻大耶城 不下 移軍錦城之南 奪掠沿邊部落而歸”.

31) 『三國史記』 卷50, 列傳 甄萱. “萱喜得人心 謂左右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 故辰卜從之而興 於是 百濟開國金馬山六百餘年 摠章中 唐高宗以新羅之請 遣將軍蘇定方 以船兵十三萬越海 新羅金庚信卷土 歷黃山至泗泚 與唐兵合攻百濟滅之 今予敢不立都於完山 以雪義慈宿憤乎 遂自稱後百濟王”.



대의 호족세력들이 이반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었다.<sup>32)</sup> 그 주된 이유는 9세기 초·중반 서해안 지방의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청해진이 혁파되면서 해상세력이 몰락한 반면, 내륙세력이 득세하였던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그 역사적인 연원이 꽤나 오랜 것이었다. 청해진이 혁파된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내륙의 토호세력들과 나주 일대의 해상세력간에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이 내재하고 있었다.<sup>33)</sup>

이러한 분위기는 견훤이 세력을 확장해 가던 당시에도 항복하지 않는 세력이 존재하면서<sup>34)</sup>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후백제의 입장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은 세력들이 배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인 부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견훤은 배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략을 감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나주 일대 호족세력의 규모가 강성하여 공파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sup>35)</sup> 정벌보다는 포섭책이 효과적이었을 텐데, 견훤은 그러한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견훤의 정벌 행위는 나주 일대 호족세력의 후백제에 대한 반감과 위기의식, 이반 현상을 고조시키는 역효과만을 가져왔을 뿐이었다.<sup>36)</sup> 따라서 후백제로서는 당분간 신라로의 진출은 물론 나주 일대에 대한 군사활동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공예정권의 나주진출은 대략 이러한 정치·군사 상황에서 비롯하는 것이었다.<sup>37)</sup>

32) 申虎澈, 1993, 앞의 책, 49쪽.

33) 鄭淸柱, 1996, 앞의 책, 148쪽.

34) 鄭淸柱, 『新羅末·高麗初의 羅州豪族』, 『全北史學』 14, 1991, 8~9쪽.

35) 鄭淸柱, 1996, 앞의 책, 150쪽.

36) 金甲童, 『高麗時代 羅州의 地方勢力과 그 動向』, 『한국중세사연구』 11, 한국중세사학회, 2001, 7쪽; 姜鳳龍,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111쪽.

37) 이에 대해서는 왕건과 나주지역간의 연대성에 주목하여 나주 호족세력의 호응과 협력에 힘입어 진출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鄭淸柱, 1996, 앞의 책, 151쪽), 공예정권 초기 전쟁의 추이, 왕건·나주간 연대성의 실체와 정도, 군사적 정벌 방식 등에서 보자면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왕건과 나주간의 사전 연대성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수군력을 바탕으로 추진한 공예정권의 군사적 정벌과 진출에 무게를 둔다.

한편 나주진출에는 당 해역의 해양 및 군사전략적인 가치 또한 충분히 반영된 것이었다. 나주는 수군의 진출이 용이하였고, 확보하였을 경우에 얻는 이점도 많은 지역이었다. 해상항로가 양호하고 선박의 항해가 용이하였기 때문에 나주 영산포의 會津은 당대 사절단과 해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던 대표적인 항구였다.<sup>38)</sup> 사절과 해상인들의 이동은 나주가 오래 전부터 해상교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나주는 조운으로도 단연 중요한 곳이었다. 고려왕조가 국초부터 남도지방의 水郡을 대상으로 12개의 조창을 갖추고 나주에 海陵倉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점<sup>39)</sup> 이전 시기의 조운 교통을 흡수한 사실을 반영한다. 이처럼 나주는 왕도-나주, 나주-중국간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양호한 항로와 조운체제를 갖춘 곳이었다.

그런데 항해와 운송, 조운 루트가 잘 발달된 해안지방은 수군작전에 더 할나위없이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선단을 이용하는 군사작전인 관계로 전방 지대를 우회한 다음에 후방 깊숙이 상륙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40)</sup> 특히 나주는 군사적으로 진출하여 지역 민심을 포섭한다면 후백제의 남진은 물론 북진과 동남방쪽의 군사작전도 견제할 수 있는 전략거점이기도 하였다. 수군을 지휘할 적임자만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한 작전이었다. 이는 왕건세력을 받아들이면서 확보한 해상력을 수군력으로 전환하고, 왕건을 비롯한 해상활동에 종사하던 인물들을 수군으로 활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38)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190~192쪽.

39)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漕運.

40) 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2003, 185쪽.

### 3. 弓裔政權의 나주진출과 海上統制戰의 전개

#### (1) 나주진출과 水軍戰略의 수립

궁예정권의 신라에 대한 정벌의지가 강렬해지고 충청권역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이 계속되던 중 후백제의 신라 대야성과 나주 일대에 대한 정벌 시도와 실패는 궁예정권으로 하여금 견제전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궁예정권은 수군으로 후백제의 배후를 정벌하는 나주진출을 감행하였다.

天復 3년 계해 3월에 舟師를 거느리고 서해로부터 光州 경계에 이르러 錦城郡을 공격하여 이를 함락시키고, 10여 郡縣을 공격하여 이를 취하였다. 이에 금성을 羅州로 고치고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귀환하였다. 이 해에 良州 장수 金忍訓이 급히 고하자, 궁예는 太祖에게 명하여 가서 구하게 하였다. 돌아오자 궁예가 邊事에 대하여 물었다. 태조가 安邊拓境之策을 말하자 좌우 모두 屬目하였다.<sup>41)</sup>

위는 903년 3월에 궁예정권이 실시한 나주진출의 전황을 전하는 기록으로, 왕건이 舟師(수군)를 거느리고 나주진출에 성공하고 귀환하여 변경을 안정시키고 척경시킬 수 있는 계책(安邊拓境策)을 상주한 사실을 전한다. 사료상 사건의 시기를 먼저 비정한 다음, 궁예정권 초의 수군활동 능력과 궁예와 신료가 주목한 ‘안변척경책’을 살피고자 한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903년의 나주 공취 기록 자체를 불신하거나,<sup>42)</sup> 금성

41) 『高麗史』卷1, 世家 太祖 天復 3年.

42) 津田左右吉, 『後百濟疆域考』, 『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343~346쪽; 池內宏, 1937, 앞의 논문, 13~15쪽; 李丙晸, 『韓國史』(中世篇), 震檀學會, 1961, 22쪽;

군을 공취한 사실은 903년으로 인정하되, 나주로의 개명은 『三國史記』의 기록과<sup>43)</sup> 같이 911년의 사건으로 파악하는 견해로<sup>44)</sup> 대별된다. 필자는 후자와 비슷한 입장에 있다. 즉 금성군과 인근 군현을 공취하는 903년대의 사건과 이후 금성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여 나주로 개명한 911년 단계의 사건이 『高麗史』 편찬시에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신라말 선사들의 귀국 행적을 적은 금석문의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五龍寺의 法鏡大師 慶猷는 908년(효공왕 12) 7월에 武州의 會津을 통하여 귀국하였다고 한다.<sup>45)</sup> 그런데 3년이나 지난 911년에 귀국한 眞澈大師 利嚴은 무주가 아닌 나주의 회진을 통해 도착한다.<sup>46)</sup> 도착한 나루터는 동일한데 그곳을 관할하는 州가 두 사람이 도착하는 3년 사이에 바뀐 것이다. 이 점은 그 동안에 금성이 나주로 개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어도 903년 금성 점령 이후의 어느 시점일 것이다. 『三國史記』 열전에는 견훤이 910년에 금성이 궁예에게 투항한 것에 노하여 보기병 3천으로 금성을 포위하여 공격한 사실을 전한다.<sup>47)</sup> ‘羅州’가 투항한 사실로 기록치 않고 ‘錦城’으로 표현된 점으로 보아 아직 나주로 정식 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듯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911년에는 궁예가 ‘錦城’을 ‘羅州’로 삼았다고 한다.<sup>48)</sup> 이로써 본다면 나주로의 개명은 911년으로 이 때에 이르러 궁예정권

文暻鉉, 1979, 앞의 논문(『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27쪽).

- 43) 『三國史記』 卷50, 列傳10 弓裔. “朱梁乾化元年辛未 … 遣太祖率兵伐錦城等 以錦城爲羅州”.
- 44) 日野開三郎, 1961, 앞의 논문, 78쪽; 文秀鎭,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 『成大史林』 4, 成大史學會, 1987, 15쪽; 鄭清柱, 1996, 앞의 책, 150~151쪽.
- 45)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 “天祐五年七月 達于武州之會津”.
- 46)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 “乾寧三年 忽遇入浙使崔藝熙 大夫方將西泛 … 天祐八年 乘查巨寢 達于羅州之會津”.
- 47)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開平四年萱怒錦城投于弓裔 以步騎三千圍攻之經旬不解”. 진도와 고이도를 함락한 909년의 기사(『三國史記』 卷12, 孝恭王 13년 6월)를 금성이 투항한 연도로 보지만(文暻鉉, 1979, 앞의 논문, 71~74쪽), 위 열전의 기록을 간과한 해석이다.
- 48) 주 43) 참조.

의 영역에 편입되면서 군사적 중심지로 공인받게 된 것이었다.<sup>49)</sup>

서해안 지방의 금성을 함락시키고 귀환한 사실을 통해서도 공예정권 초기 수군의 작전능력을 살필 수 있다. 왕건이 지휘한 수군은 기지인 眞州(풍덕)를 출발하여 서해안을 따라 남진한 뒤, 광주 경계에 상륙하여 금성군 일대의 십여 군현을 공취하고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이동 항로를 통해 볼 경우 수군의 행동반경은 서해안 지방을 모두 포괄하던 수준으로 원거리 작전능력을 갖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위기에 처한 ‘良州 帥’ 金忍訓을 구한 것마저 수군 작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물론 양주의 위치를 대구 일대로 보고<sup>50)</sup> 이 지역이 후백제의 세력권 안에 있던 곳이므로 군사작전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예정권의 지배력이 경상도까지 미치지 못했던 사정을 들어 사료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다.<sup>51)</sup> 그러나 사실 김인훈이 위기에 처해 있던 지역인 양주는 현재의 대구가 아닌 양산 일대였다.<sup>52)</sup> 최근의 견해에 의지해 보건데 양주지역은 당시 어느 정권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던, 독자적인 지방세력이 활동하던 공간이었다. 그러한 공간에서 독자적인 세력들 간에 주도권 싸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하게 된 김인훈이 공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왕건의 구원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sup>53)</sup>

김인훈 구출은 당시 나주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던 수군의 일부 병력이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원거리 항해의 위험성으로 구출작전에는 개성-서울-이천-진천-청주-보은-상주-대구를 잇는 육로를 이용하였을 경우도 있겠다.<sup>54)</sup>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왕건이 개성으로 귀환한 다음

49) 鄭淸柱, 1996, 앞의 책, 155쪽.

50) 金甲童, 1985, 앞의 논문, 41쪽.

51) 文暉鉉, 1979, 앞의 논문, 76쪽.

52) 위와 같음.

53) 이종봉, 『羅末麗初 梁州의 動向과 金忍訓』, 『지역과 역사』 13, 부경역사연구소, 2003, 103~104쪽.

육로를 이용하여 구출작전에 나서야 하는 만큼 시간 소요가 많고, 후백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 따라서 감시망을 피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수군이 유리하였을 것이고, 이미 같은 시기에 나주에서 수군이 작전하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남해안 방면으로 출동시켜 낙동강을 통하여 구출케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55)</sup> 조금 뒤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927년(태조 10년) 해군장군 英昌과 能式이 수군을 거느리고 康州(진주)를 공략하고 연해민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례는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한다.<sup>56)</sup>

나주진출에 성공하여 거점을 확보한 뒤 궁예정권은 향후의 정세를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점은 왕건이 궁예에게 건의한 ‘安邊拓境策’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궁예를 중심으로 신료 모두가 廣評省에 모인 자리에서<sup>57)</sup> 왕건이 제안한 안변적정책은 글자 그대로 변경지대를 안정시키는 ‘安邊’과 영토를 넓히는 ‘拓境’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후백제 및 신라와 대치한 변경지대의 방위 문제를 중심으로 확보한 변경지대와 지방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 등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安邊’과 ‘拓境’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남방을 위한 정책이었을 것으로 논란의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1년 뒤인 904년에 淸州人戶 1천을 철원지방으로 사민시킨 사례를 근거로<sup>58)</sup> 후백제와 접경지대에 위치하

54) 金甲童, 1985, 앞의 논문, 41쪽.

55) 黃善榮, 『高麗初期 王權研究』, 東亞大學校出版部, 1988, 60~61쪽;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4, 31~33쪽. 수군으로 남한강을 경유하여 구원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河炫綱,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27쪽),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를 경유한 것인지 모호하다.

56)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10年 夏四月 壬戌. “夏四月壬戌 遣海軍將軍英昌能式等 率舟師往擊康州下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等四鄉 虜人物而還”.

57) 李在範, 1991, 앞의 논문, 74쪽.

58) 『三國史記』 卷50, 列傳10 弓裔. 淸州人戶의 사민과 철원 천도에 대해서는 李基白, 『高麗京軍考』,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洪承基, 『高

던 청주 부근에 대한 방책이라는 것이다.<sup>59)</sup> 방책이 논의되고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주인호의 사민이 철원으로 실시되었던 점에서 보자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접경지대인 청주 일대를 위한 방책이었다고 한다면 지역 민심의 향배에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主攻路에 위치한 청주에 군사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人戶의 사민은 적합치 않은 방책이다.

이에 비해 왕건이 올린 안변척경책의 字意로 보아 국방 관계의 정책건의인 북진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sup>60)</sup> 왕건이 군사작전을 마치고 귀환한 얼마 뒤에 안변척경책을 제시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 내용에는 국방과 관계된 사안이 포함되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다만 방책의 내용이 북진정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고 평가한 점에서는 왕건이 집권한 이후로 추진하였던 西京 경영과 북진정책을 의식한 해석이 아닐까 싶다. 안변척경책이 수립된 이후인 905~907년에 걸쳐 나타나는 군사작전의 양상이 북방보다는 남방의 竹嶺 일대와 尙州(상주), 一善郡(구미) 일대를 중심으로 육상전이 전개되고,<sup>61)</sup> 이후 궁예정권이 몰락하는 순간까지 해상작전이 후속된 점에 유의한다면 방책이 포괄하는 의미는 북방보다는 남방의 방책으로 평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변척경책이 내포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나주에 왕건이 수군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또한 안전하게 귀환한 직후에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麗初期 中央軍의 조직과 역할,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高麗政治史研究』, 一潮閣, 2001); 朴敬子, 『清州豪族의 吏族化』, 『院友論叢』 4, 淑明女大大學院, 1986(『고려시대 향리연구』, 국학자료원, 2001); 金甲童, 1986, 앞의 논문; 金周成, 『高麗初 清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韓國史研究會, 1988; 安永根, 『羅末麗初 清州勢力의 動向』,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上, 探求堂, 1992; 丁善溶, 1997, 앞의 논문; 辛호철, 2002, 앞의 책 참조.

59) 金甲童, 1985, 앞의 논문, 41~42쪽.

60) 閔賢九, 『高麗政治史論』,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68쪽.

61)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9年;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天祐 3年;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11年.

필요가 있다. 나주진출을 통해서 경험한 서해안 지방에서의 수군작전의 가능성과 효용성, 海上權<sup>62)</sup>을 장악하였을 경우에 파생되는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그동안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과 양주를 점령하였으므로 이후 작전은 나주를 거점으로 서해안 지역에 진출하여 경계를 개척하자는 전략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가 주목된다.<sup>63)</sup>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안변척경책이 마련된 이후의 군사작전은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육상전이 치러졌고, 얼마의 공백 기간을 거쳐 다음에는 해상전이 후속하였다. 이 점은 가령 왕건이 수군의 효용성을 강조하여 수군전략 중심의 정벌전을 건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정책 결정에서는 수군작전만이 아닌 육군과 수군을 공히 운용하는 방책을 확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당시에 논의된 안변척경책에는 육군전략과 수군전략을 포괄하는 군사전략이 수립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sup>64)</sup>

그렇다면 왕건이 제시한 수군전략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아마도 그것은 수군으로 서해안에 진출하여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하면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장기적인 군사력 투사로 나주지방에 대한 대민지배력을 강화하여 전략적인 거점으로 공고화시키자는 방책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왕건의 정책적 건의에 대해 ‘左右屬目’으로 표현된 점에서 보듯이 논의 과정에 참가한 다수의 신료들은 왕건이 제시한 방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左右’로 표현된 이들의 존재가 분명치는 않지만, 수군작전의 실행에 앞서 905~907 년간에 벌어진 지상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수군전략으로의 전환에 어떤

62) 현대전략 이론에서는 制海權(Command of the sea), 海洋統制權(Sea Control) 등으로 설명한다. 姜永五, 『海洋戰略論』, 韓國海洋戰略研究所, 1998 참조.

63) 劉璟娥, 「王建的 勢力成長과 對弓裔關係」, 『考古歷史學志』 7(『梅溪黃雲龍教授停年退任紀念特輯』), 東亞大學校博物館, 1991, 327쪽.

64) 안변척경책이 논의되던 903년에 마련되었을 육군전략의 실체와 내용은 이듬해부터 시작되는 淸州人戶의 사민과 鐵鳳遷都의 정치군사적 목적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보다 분명한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나 추정된다.<sup>65)</sup>

이처럼 궁예정권은 안변척경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군전략과 수군전략을 근간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그 실행은 궁예정권이 신라정벌을 주요 군사적 목표로 설정하였던 만큼 육군전략에 기반한 지상작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신라정벌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향후 군사활동의 전개 양상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육군전략에 기초한 신라정벌전은 후백제의 군사적 견제와 대응, 신라의 필사적인 방어력에 가로막혀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궁예정권의 군사전략은 안변척경책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수립하였던 수군전략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909년 이래 지속된 수군을 이용한 해상통제전은 이처럼 군사전략을 수군전략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sup>66)</sup>

궁예정권이 나주에 대한 지배전략을 추진하고 또한 안정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군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때문에 요구되는 인력과 물자, 선박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와 조직의 설치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였다. 나주진출 1년 뒤인 904년에 정식 중앙정부의 관부로 설치된 ‘水壇’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추정된다.<sup>67)</sup> 현재의 자료로서는 수단의 조직과 업무 내용을 분명히 확

65) 이처럼 안변척경책을 논의하던 과정에는 전쟁의 목표와 수단, 수행 방식 등을 놓고 정치 세력간 입장적 차이점이 존재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은 궁예정권의 틀속에서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략의 우선적 적용 등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장기적으로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66) 다소 설화적이기는 하지만 “왕건의 나이 30세에 海中에 떠있는 9층 金塔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는 기록을(『高麗史』卷1, 世家1 太祖 乾化 4年 甲戌) 통해 수군전략으로의 전환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왕건이 30세 되던 나이를 환산하면 906년이요(주 12), 삼한 통일을 상징하는 9층 금탑이 지상이 아닌 해중에 떠있던 점에서 대략 906년 즈음에 이르러 해상전을 통한 정벌 방식이 정계내에서 다시금 논의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906~907년간의 戰況은(주 61) 후백제의 필사적인 견제와 신라 진출로인 일선군에 대한 점령으로 육군전략에 기초한 궁예정권의 신라정벌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처지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나주진출 직후에 하나의 관부로 설치하였던 점에서 이전 단계부터 추진해 온 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sup>68)</sup>

궁예정권은 수군전략을 토대로 서해안에서 수군을 이용한 해상통제전을 전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귀부해 오는 호족들에 대해서는 지배권을 인정해 주고, 관작 또한 수여하면서<sup>69)</sup> 나주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침투시켜 나아갔다. 이러한 노력은 곧이어 실효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郡人이 後高句麗王 궁예에게 歸附하였다”고 하는 점은<sup>70)</sup>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는 나주의 호족 개인만이 귀부해 온 것이 아닌 그동안 지배해 왔던 영역과 인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sup>71)</sup> 수군전략에 기초한 해상통제전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던 분위기를 반영한다.

## (2) 海上統制戰의 전개와 海上權 확대

나주진출 2년 뒤인 905년 8월, 궁예는 군사력을 신라 방면으로도 보내어 竹嶺 지방을 위협하였다.<sup>72)</sup> 이어서 이듬해에는 보병과 기병을 尙州 방면으로도 보내어 견훤과 수차례의 접전을 벌였다.<sup>73)</sup> 육군전략에 기초하여 단행된 지상작전으로 육군을 동원하여 신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궁예정권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후백제는 이듬해 신라와 국경을

67) 『三國史記』卷40, 職官下 高句麗·百濟 職官 및 卷50, 列傳10 弓裔.

68) 궁예정권의 수군 직제를 놓고 臨事設官의인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金南奎, 1983, 앞의 논문, 205쪽). 그러나 성격 규정은 보다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69) 李在範, 1991, 앞의 논문, 50쪽.

70) 『高麗史』卷57, 志11 地理2 羅州牧. “未幾 郡人附于後高句麗王弓裔”. 이를 놓고 王建에게 歸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필자는 弓裔政權에 귀부한 것으로 본다.

71) 申虎澈, 「新羅末 高麗初 歸附豪族의 政治的 性格」, 『忠北史學』 8, 忠北大學校史學會, 1995, 18쪽.

72) 『三國史記』卷12, 孝恭王 9年 8月.

73)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天祐 3年.

맞대고 있던 一善郡 이남의 1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sup>74)</sup> 이로서 양국은 상주 방면을 두고 또 하나의 전선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처럼 육군에 의존한 신라정벌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궁예정권은 수군작전으로 전략의 방향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전략의 변화에 따라 작전은 서해안 지방에서의 후백제와 해상세력에 대한 해상통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梁 開平 3년 己巳에 太祖는 弓裔가 날로 포박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외방 군무에 뜻을 두었는데 마침 궁예가 羅州를 근심하여 태조로 하여금 가서 지키도록 하고, 官階를 올리어 韓縵 海軍大將軍으로 삼았다. … 舟師를 거느리고 光州 鹽海縣에 머물렀다가 甄萱이 吳越國으로 파견하는 선박을 노획하여 돌아오니 궁예가 심히 기뻐하며 褒獎을 더하여 주었다. … 드디어 光州 서남의 경계인 潘南縣 포구에 이르러 적경에 첩보망을 늘어놓았다. 그 때에 壓海縣의 적수 能昌이 해도에서 일어났는데, 수전을 잘하여 水獺이라고 불리었다. 그는 망명한 이들을 모아 葛草島의 小賊들과 연결하여 태조가 오는 것을 기다려 해치려고 하였다. 태조가 제장에게 말하기를, “能昌이 이미 내가 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반드시 도적들과 변을 일으킬 것이다. 적도의 무리가 비록 적으나, 만일 세를 합하여 우리의 앞뒤를 막는다면 승부를 알 수 없다. 물에 익숙한 자 십여인으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輕舫을 타고 밤에 葛草島 입구로 가서 음모하려고 왕래하는 자를 사로잡아 그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장이 모두 그 말에 좇아 과연 한 척의 小艇을 잡으니, 그가 바로 능창이었다. 태조가 그를 잡아 궁예에게 보냈더니, 궁예가 크게 기뻐하고 능창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하기를, “海賊이 모두 너를 영웅으로 추대하지만, 지금은 나의 俘虜가 되었으니 어찌 나의 계책이 신묘치 않은가” 하고 곧 여러 사람에게 보인 후 斬하였다.<sup>75)</sup>

74)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11年.

75)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年.

위는 서해안 지방에서 왕건함대가 수행한 해상통제전을 전하는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궁예가 왕건에게 수군을 총지휘하는 재량권을 부여한 사실이 주목된다. 궁예의 휘하에 많은 장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건이 수군 작전의 총수로 임명된 것은 그동안 수륙상의 군사활동에서 두각을 보였고, 또한 안변척경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궁예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궁예는 왕건이 자신의 정권이 추진하는 군사전략을 수군력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였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海軍大將軍’에 임명하고 수군작전의 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에 부응하여 왕건 또한 수군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작전의 첫 번째 성과는 후백제의 사신선을 포획한 것이었다. 왕건 함대가 오월국으로 향하던 후백제의 사신선을 붙잡은 시기는 수군작전이 활기를 띠던 909년(開平 3년)의 일이었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주로 진출한 왕건함대가 서남해역 내에서 첩보를 수집하면서 후백제의 주요 항로와 동태를 주의깊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건함대가 “光州 塩海縣에 잠시 머물렀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는 이미 최초로 나주에 진출하는 903년 이래 염해현<sup>76)</sup> 지역에 심어 놓은 첩보망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왕건함대는 첩보망을 바탕으로 주요 해역에 대한 차단과 통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나주 군무를 자원하여 내려 온 왕건이<sup>77)</sup> “군사들을 정성으로 위무하고, 위엄과 시체를 병행하여 통솔하매 士卒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였다”는 기록은<sup>78)</sup> 접적해역에서 군무활동이 정연하게

76) 景德王代 塩海縣을 고려시대에 臨淄縣으로 고쳤다(『高麗史』 卷57, 志11 地理2, 臨淄縣). 현재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의 임치에 해당한다.

77) 궁예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王建의 소극적인 저항으로(鄭淸柱, 1996, 앞의 책, 107쪽), 궁예가 왕건의 군사력 확보의 기회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洪承基, 2001, 앞의 책, 163쪽).

78)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年. “太祖推誠撫士 威惠並行 士卒畏愛咸思奮勇”.

이루어지던 사정을 반영한다. 결국 후백제의 사신선은 왕건이 염해현 일대에 심어 놓은 첩보망을 근간으로 해역 내에서 해상통제전을 수행하던 수군에 의해 사로잡힌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후백제는 당분간 오월국과 대외 교섭 창구가 막히는가 하면<sup>79)</sup> 중국 왕조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온 대외적 정통성과 지위도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왕건합대가 수행한 해상통제전에는 壓海縣<sup>80)</sup>의 영웅으로 추대를 받던 해상세력 능창도 포획되었다. 이 점은 압해현에 기반을 둔 능창의 활동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왕건이 제장들에게 말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능창이 오고 가는 사정은 물론 그 세력의 규모와 변란의 시기 등 소상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전에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건은 예상한 길목에 소수의 병력과 전선을 보내어 능창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통제작전으로 해상세력들은 상호 연대는 고사하고 독자성마저 상실하면서 점차 궁예정권에 흡수되어 갔다. 이후 궁예정권은 해상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면서 나주와 인근 도서 지방에 대해 해상권을 확대해 나아갔다.

한편 능창을 포착하는 과정을 보면 궁예정권의 해상통제전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사로잡힌 능창은 압해현의 적수로 수전에 능하면서 인근 해도의 小賊들로부터도 신망을 받아 온 제법 규모가 큰 해상세력이었다. 그는 수군 활동을 풍부하게 경험한 왕건 조차도 어렵사리 잡을 만큼 바다 사정에 정통했다. 이러한 인물은 영향력과 세력 범위가 큰 관계로 다수가 동일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능창이 해도에서 일어났다”고 표현된 점에서 보듯이 다양한 규모의 세력 집단이 해도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세력의 우열 경쟁을 통해 결집되면서 점차 능

79) 李基白, 「王建」, 『韓國의 人間像』 2, 新丘文化社, 1965;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16쪽.

80) 고려초의 壓海縣으로(『高麗史』 卷57, 志11 地理2 壓海縣) 현재의 신안군 압해면에 해당한다.

창과 같이 규모를 갖춘 세력으로 통합되었을 것이다.

후백제와 해상으로도 대치하던 상황에서 水戰에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인근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을 포섭한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그런 인물들을 군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면 해안지방에 대한 지배권 또한 한결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이런 이유로 능창처럼 포섭 가치가 높은 세력은 왕건 자신이 직접 처리치 못하고 궁예에게 호송하였던 것이다. 궁예는 서남해역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대한 전략적 과제였던 만큼 능창을 회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회유노력이 실패하였던지 궁예는 결국 능창을 참수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능창을 견훤의 부하로 활동하면서 궁예정권에 장애를 끼쳤던 세력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81)</sup> 그러나 직접적으로 능창을 견훤과 관련지어 표현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이나, 賊帥로 칭한 점, 갈초도에도 적지 않은 小賊들이 활동하던 점, 왕건과 궁예가 능창을 각각 島賊과 海賊으로 부르던 사정으로 보아 능창은 갈초도 일대를 거점으로 인근 세력들을 규합하여 활동하던 해상세력이었음이 분명하다.<sup>82)</sup> 아마도 능창은 서해안 지방의 해상세력에 대한 해계모니를 위협해 오던 상황에서 자신의 지역적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 저항한 독자성이 강한 해상세력가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sup>83)</sup> 궁예가 능창을 참수한 표면상의 이유는 자신의 회유노력에 포섭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독자성을 표방하는 해상세력들이 후백제를 지지하거나 독자적인 세력으로 결집하여 궁예정권의 수군작전에 방해를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그 화근을 사전에

81) 文秀鎮, 1987, 앞의 논문, 17쪽; 申虎澈, 1993, 앞의 책, 31~32쪽; 권덕영, 「신라 하대 서·남해 海賊과 張保皐의 해상활동」, 『대의문물교류』,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26쪽.

82) 鄭清柱, 1996, 앞의 책, 154쪽.

83)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125쪽. 鄉豪(文暉鉉, 『高麗史 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 2000, 108쪽), 도서해양세력으로 본다(姜鳳龍, 2002, 앞의 논문, 126쪽).

차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궁예정권은 수군을 이용한 해상통제권을 전개하여 후백제와 오월국간의 외교 교섭을 차단함으로써 대외적 정통성을 약화시켰다. 나아가 후백제군의 해상 군사활동 또한 제압하면서 해상 사용을 통제하고, 인근 해상세력과의 상호 교섭 가능성마저도 차단함으로써 외교·군사적인 고립을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수군력에 힘입은 궁예정권은 서해상에 대해 해상권을 확대하고<sup>84)</sup> 주변 해역과 해도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여타의 군소 해상세력들도 포섭하면서 나주 인근의 지방 지배력을 다지는데 핵심인 인적·지역적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 4. 德津浦海戰과 후삼국의 정세 변화

909년(開平 3년)에도 나주지방의 전쟁 상황은 계속되었다. 궁예의 명을 받은 수군이 6월에 병선을 이끌고 와서 珍島郡을 점령하고 阜夷島城을 함락시켰다.<sup>85)</sup> 시각에 따라서는 이 사건을 두고 궁예정권이 903년(天復 3년)에 나주지방에 성공적인 진출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백제의 수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진출하였다고 보기도 한다.<sup>86)</sup> 그러나 후백제가 나주 일대를 점령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은 궁예정권이 수군작전의 범위를 진도와 고이도가 위치

84) 이 단계 궁예정권의 서해안 지방에 대한 해상권 확대는 후백제의 대외군사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정도로 확대된 상황이었을 것이다. 해역적 범위로는 서해안을 포함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계, 그리고 일부 도서지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85) 『三國史記』卷12, 孝恭王 13年, “夏六月弓裔命將領兵船降珍島郡 又破阜夷島城”.

86)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102쪽. 시기를 구체화시켜 908~909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후백제가 점령한 것으로도 본다(鄭淸柱, 1996, 앞의 책, 152쪽).

한 서남방의 도서지방으로 확대하던 사정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해함이 옳을 듯 싶다.

다급해진 후백제는 이듬해 견훤 자신이 직접 보병과 기병 3천을 동원하여 나주성을 에워싸고 열흘 동안이나 포위를 풀지 않는, 나주지방에 대한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궁예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역시 수군을 동원하여 모면하였다.<sup>87)</sup> 이 점에서 후백제군과 궁예정권의 군사력의 수준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적어도 이 단계까지 궁예정권의 군사력 운영이 수륙군을 공히 포괄하였던데 비해, 후백제는 수군력의 운영면에서 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열세적인 처지에 있었다.

물론 후백제에 수군만으로 구성된 군사조직이 존재하였고, 지상군과는 달리 수군조직이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었다고도 본다.<sup>88)</sup> 그러나 910년 단계에 이러한 체제로 운영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이와 비슷한 형태로의 운영도 덕진포해전에서 패배한 이후 전력정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후백제의 수군은 서해안 지방에 대한 해상권이 현저히 약화된 909년부터 덕진포해전이 발발하는 912년<sup>89)</sup>까지 집중적인 전함 건조와 수군력 확보에 힘입은 결과였다. 그 목적은 약화된 서해안의 해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87) 『三國史記』卷12, 孝恭王 14年. “甄萱躬率步騎三千 圍羅州城經旬不解 弓裔發水軍襲擊之 萱引軍而退”.

88)李文基, 「甄萱政權의 軍事的 基盤—특히 新羅 公兵組織의 再編과 關聯하여」,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109~110쪽.

89) 『三國史記』卷50, 列傳10 甄萱. “乾化二年 萱與弓裔戰于德津浦”.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김인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해안, 1996, 171쪽)를 보면 912년 8월로 확인된다. 909년으로 보거나(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73쪽), 910년(崔碩男, 1964, 앞의 책, 76쪽), 909년과 912년의 2회 사건으로도 이해하지만(鄭淸柱, 1996, 앞의 책, 152~156쪽; 문안식·이대석, 2004, 앞의 책, 350~360쪽), 필자는 금석문의 기록에 의지하여 912년 8월에 발생한 1회의 사건으로 본다. 해전의 명칭 역시 木浦海戰(大戰), 羅州海戰, 몽탄해전 등으로도 불리지만 해전의 발발 장소가 덕진포 근해인 점에서 德津浦海戰으로 명명한다.



다시 羅州浦口에 이르니, 견훤이 친히 兵을 거느리고 戰艦을 늘어놓아 木浦에서 德津浦에까지 이르렀다. 머리와 꼬리를 서로 물고, 수륙중흥으로 병세가 심히 성하였다. 제장들이 근심하기에 太祖가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라. 군사가 승리하는 것은 和에 있지 衆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軍을 급히 몰아 공격하니 적선이 퇴각하였다. 바람을 타 불을 놓으니, 타죽거나 익사자가 태반이었다. 오백여급을 참획하였으나, 견훤은 小艇을 타고 달아났다. 처음에 나주 관내 여러 郡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적병이 길을 막아 서로 응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못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 때에 와서 견훤의 정예부대를 격파하니 衆의 마음이 모두 안정되었다. 이리하여 三韓 전체 지역에서 궁예가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sup>90)</sup>

덕진포해전은 서해안 지방으로 팽창해가던 궁예정권과 후백제가 나주지방의 해상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 후삼국 초반의 가장 격렬한 전투였다. 해전은 크게 접근 단계와 전투 단계, 해전 이후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접근 단계에서는 참가한 전력과 전투를 준비하는 대형 등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전력면에서는 후백제군이 우위에 있었다. “후백제의 兵勢가 심히 盛하였다”라는 기록과 왕건함대의 “제장들이 근심하는 빛이 있었다”는 점은 일단 전력면에서 후백제가 압도하던 상황을 말해 준다. 실제 참가한 척수를 환산한 견해에서는 왕건함대와 후백제 수군을 80척 대 150척으로 추산하였다.<sup>91)</sup> 이는 3년전 고이도 점령시에 참전한 왕건함대의 병력이 2,500명인 점을 근거로 척당 대략 30명이 승선하였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다. 참가한 함선 숫자가 분명치 않고, 고이도 정벌과는 별도의 사건이라 사실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 왕건함대의 병력이 3천명 수준을 넘지 않고, 2년 뒤의 출정시에도 70여척을 거느린 점과<sup>92)</sup> 비교한다면

90)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年.

91)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89쪽. 일찍이 양측의 함선과 병력을 70~100척, 2,000~3,000명 정도로 계산하여 군선당 탑승 인원을 30명으로 추산한 견해가 있다(金在瑾, 『韓國船舶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32쪽).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전투를 준비하는 대형의 배치는 양측이 달랐다. 후백제가 木浦에서 영암 방면쪽에 위치한 德津浦<sup>93)</sup>에 이르기까지 전함을 늘어놓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현재 영산강 하구로 비정되는<sup>94)</sup> 목포로부터 영암과 나주로 물줄기가 갈라지는 지점을 거쳐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쪽으로 전력을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95)</sup> 그런데 목포의 위치를 나주시 남쪽에 위치한 영산포로 비정하거나,<sup>96)</sup> 영산포 인근으로 볼 경우에는<sup>97)</sup> 배치가 달라진다.<sup>98)</sup> 현재로서는 어느 배치가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목포의 위치 비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호하고, 왕건이 이르렀다는 나주포구의 위치도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선 후백제군이 長蛇陣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영산포~덕진, 영산강 하구~덕진간을 포함할 정도로 장거리에 걸쳐 전력을 배치할 수는 없다. 또 후백제군이 지형적인 측면을 이용하여 나주를 봉쇄하기 위해 선단의 배치를 목포~덕진포간에 설치했다고 한다면, 덕진포와 대응되는 포구로 현재의 목포는 결코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sup>99)</sup>

결국 관건은 “나주 관내 여러 郡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적병이 가로막아 응원할 수 없었다”는 기록과 후백제의 공방 형태가 보기병과 협동작전을 취한 점에 있다. 즉 후백제는 보기병력의 일부를 이용하여 우선 나주 관내를 포위하여 왕건함대의 상호 지원을 차단하고, 주력인 수군은 영암과 나주로 갈라지는 해점에서부터 덕진포 방면으로 배치하여 보기병과의 협공

92)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乾化 4年 甲戌.

93)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부근에 해당한다.

94)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122쪽.

95)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91쪽의 전황도 참조.

96) 文秀鎮, 1987, 앞의 논문, 19~20쪽; 鄭淸柱, 1996, 앞의 책, 157쪽.

97) 李海濬, 「목포의 역사-개항 이전사」, 『木浦市の 文化遺蹟』, 國立木浦大學校博物館, 1995, 14~21쪽.

98) 임용환, 『전쟁과 역사』, 혜안, 2001, 316쪽 해전도 참조.

99) 李海濬, 1995, 앞의 논문, 17쪽.

을 계획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세를 좀더 크게 과장하기 위해 나주 방면으로도 얼마의 전함을 배치하였다. 배치 구도가 이러하였기에 관찰자는 마치 영산포 방면과 영암쪽의 덕진포간에 많은 수의 전함이 연결된 양 파악되었고, 사료상의 기록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해전이 발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해역은 후백제의 주력이 위치한 영암과 나주 방면으로 갈라지는 해점에서 덕진포 쪽으로 육지와 근접한 곳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서해안 해역에 대한 해상권은 공예정권이 거의 장악해가던 사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백제군이 내륙으로 들어간 덕진포까지 함대를 이동시켜서 진을 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제해권을 상실한 후백제가 전주와 군산 일대에서 수군을 동원하여 진출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sup>100)</sup>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견훤이 어느 포구에서 함선을 마련하고 또한 어떤 해상 루트를 통해 함대를 이동시켰는지는 의문인 것이다.

아무튼 후백제는 초반부터 보기병과 협공이 유리한 대형으로 나왔다. “水陸縱橫으로 병세가 성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 군세의 강성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수군과 지상의 보기병이 상호 협공이 용이한 지원 형태로 진형을 편성한 것을 말한다. “머리와 꼬리를 물고” 하는 형태의 배치도 일렬로 대형을 배치하는 종렬진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하나의 축만을 기준점으로 하여 배치한 것은 아니었다. 종축으로 뿐만 아니라, 횡축으로도 전함을 배치하였던 것으로, 전면에 여러 겹의 방어망을 형성하여 상대방의 공격력을 흡수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진형이 전함 상호간의 협공과 지원이 용이하도록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배치된 것으로 보면 오산이다. 바람과 조류가 전함의 이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의 대열 형성은 어려웠을 것이다. 후백제군의 대형과는 달

100) 문안식·이대석, 2004, 앞의 책, 361쪽.

리 소수였던 왕건함대는 순조와 순풍을 최대한 이용하여 빠른 기동력과 돌파력을 구사할 수 있는 밀집대형을 취하였다.<sup>101)</sup> 함선을 급격하게 몰아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대열을 유지하면서 중심부를 빠르고 강하게 강타하는 충과전술에 초점을 맞추어 밀집대형을 형성한 것이었다.

해전은 양 함대가 대치한 상태에서 왕건함대가 빠른 속도로 상대방의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시작되었다. 빠른 기동력을 주무기로 사용한 왕건함대의 중심부 공격전술은 커다란 효과로 나타났다. 후백제군의 전열이 깨지면서 인접해 있던 전함들간 상호 충돌이 발생하고, 전방함과 인접함, 후방함간 상호 뒤섞이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대형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전함간의 간격이 더욱 밀착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 사이 왕건함대는 진행 속도를 늦추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후백제 전함과의 간격을 벌려 놓았다. 잠시 뒤 후백제의 진형이 혼란 상황에 빠진 것을 포착한 왕건은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여<sup>102)</sup> 화공전을 전개하였다. 후백제군의 전함간 간격이 밀착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공전의 피해는 인접한 함선으로 쉽게 이어졌고, 그 파급 효과는 견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sup>103)</sup>

당시 화공전에 사용하였던 무기는 분명치 않다. 약간 후대의 기록이지만 고려 인종 13년(1135)에 발발한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는 전투를 보면 반란

101) ‘밀집대형’이라고 하지만, 고대 중국의 보병들이 사용한 사각형 형태의 方陣과 그리스의 보병이 사용한 밀집대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돌파력을 크게 하기 위해 전함을 일정한 축을 기준으로 밀집시킨 형태로 속도와 간격,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대형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2) 金州植·鄭鎭述, 2001, 앞의 논문, 189쪽에서는 서풍 또는 서북풍으로 보았다. 필자 또한 위의 견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과 왕건함대의 최종 공격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판단을 유보한다.

103) 근대 이전의 해전에서 해상기상(바람, 조류)은 매우 중요한 전술 정보에 해당한다. 663년에 발생한 白村江(白江)戰에서 日本軍이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도 氣象을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 8月).

군과 진압군이 火船과 火毯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sup>104)</sup> 그런데 화구는 당시의 전투에서 육상 공성용 무기로 활용되었다. 때문에 육상용으로 운용하던 무기를 곧바로 수상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발사 장치의 설치에 따른 전투원과 전투 무기의 탑재 제한은 물론 실제 화구를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 공간이 보장되었는지, 발사시 전함에 미치는 충격 등 전술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전함에 장착하여 공격하기 용이한 소규모로 개조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비해 화선은 적군과 조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용이한 임의의 장소에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상으로부터 공격을 감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화선을 장시간 동안 이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때문에 장시간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술적으로도 불리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서경의 반란군이 공격한 방식처럼 소형 선박을 화선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화선용 선박을 이동시키는데 따르는 불편함은 전함의 선미에 매달아 끌고 다닌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화구보다는 화선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sup>105)</sup> 아울러 기름을 이용하여 발화력을 높인 재래식의 火矢(불화살)와 같은 공격무기도 병행하였을 것이다.

후백제군은 왕건함대의 바람을 이용한 화공전으로 말미암아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견훤도 해전에서 화공전이 단연 중요한 전술이었음을 알았을 것이기에 당연히 그것을 이용하여 공격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해전이 발발하던 주변 해역의 시간대별 조류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방향

104) 『高麗史』 卷98, 列傳11 金富軾, “西人以小船十餘艘 載薪灌油火之 隨潮而放 … 以火發同時 齊舉及火船相迫 延燒戰艦衆弩俱發 … 趙彥獻計制砲機 置土山上 其制高大 飛石重數百斤 撞城樓糜碎 繼投火毯焚之 賊不敢近”.

105)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90쪽에서는 화구로 추정하였다. 필자 역시 화구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단계 근거자료의 부족과 전술적 제한점 등을 고려하여 화선의 사용에 무게를 둔다.

과 같은 아군에게 유리한 해상기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공 전술을 미처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궤멸된 것이었다. 이처럼 해전의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장 환경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전술적 결함으로 야기된 문제는 해상에서 전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허락치 않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초전에 기선을 제압당한 후백제군은 지휘통제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구상했던 보기병과의 협공작전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견훤은 가까스로 얼마간의 병력만을 추스른 채 작은 전선을 타고 간신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sup>106)</sup>

해전의 결과는 양국의 군사작전의 방향은 물론, 후삼국이 대처하는 정세 변화, 그리고 왕건의 정치적 성장을 가져왔다. 일차적으로 후백제는 수군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서해안 지방에 대한 해상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나주지방에 대한 관심을 얼마간은 보류해야 했다. 때문에 930년대 예성강에서의 수군작전이 가능하기까지는<sup>107)</sup> 보기병력에 의존한 작전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군사전략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반해 덕진포해전에서 승리한 궁예정권은 후삼국의 정세를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해전이 발발하기까지 903년 이래 추진한 안변척경책에 힘입어 서해상의 해상권은 궁예정권으로 완전히 넘어갔고,<sup>108)</sup> 나주는 친궁예정권적인 성향을 띠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그런데 해전이 발발하던 시기에도 지역민의 분위기는 자못 동요하고 있었다. 표면상의 이유는 나주 管内의 여러 郡들이 궁예정권의 본토와 떨어져 있는데다가, 이를 후백제가 가로막아 상호 연락과 지원을 할 수 없었기

106) 후백제군의 패배 원인으로 전문 수군 인력의 부재, 지휘통제력과 해상전투능력의 부족, 기상정보(바람과 조류)를 조기에 파악치 못한 점 등 많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전술적 차원의 상세한 고찰이 요망된다.

107) 『三國史記』卷50, 列傳10 甄萱.

108) 현대 해양전략론에서는 덕진포해전의 승리를 해양지배(재해권)를 확립하고 전진기지였던 나주를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姜永五, 1998, 앞의 책, 151쪽).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공예정권에 귀부한 상황이었지만 현지인들의 정서는 유동성을 띠던 사정이 잔존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인 힘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그 유동성은 실제적으로 작용하여 지역민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해전의 결과에 따라 나주지역 지배권의 향배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전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동요하던 郡民의 불안감은 해소되었다. 이는 공예정권이 나주지방에 대해 추진해 왔던 군사활동이 일단락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나주를 공예정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나주민 또한 공예정권의 지배를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三韓 땅의 절반을 공예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록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공예정권의 정벌 범위가 확대되고, 그 지배력 또한 이전보다는 훨씬 강고하게 행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예정권이 후삼국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던 정세 변화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덕진포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건은 위명을 떨치면서 공예정권 내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다. 수군의 효력이 입증된 이상, 그에 대한 기대와 명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띠어 갔다. 이는 곧 왕건의 실질적인 정치적 성장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결국 이러한 정국은 수륙군 운용과 군사전략의 적용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가운데 왕건을 추종하는 세력과 공예세력간의 정책적 충돌의 장을 마련하고 있었다. 918년, 정권을 장악한 왕건은 나주에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민사·군사의 행정을 담당하는 羅州道大行臺를 설치하면서<sup>109)</sup> 지방지배의 제도화를 위한 후속작업을 단행하였다. 중국에는 이곳을 통하여 후백제왕 견훤이 귀순하면서<sup>110)</sup> 후삼국 통일도 성취하기에 이른다.

109)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元年 9月 癸巳. 朴漢高, 「羅州道大行臺考」, 『江原史學』 1, 江原大學校史學會, 1985, 25쪽.

110)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8年 夏六月.

## 5. 맺 음 말

명주에서 출발한 궁예정권은 패서지방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배력을 확장하고 왕건세력을 받아들이면서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후 송약에 도읍한 뒤로는 高麗를 국호로 정하여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는 한편 지역민의 유대의식과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를 토대로 궁예정권은 신라정벌을 국가의 핵심 목표로 하는 군사정책을 공공연히 표방하게 되었다. 이 점은 후백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통성과 역사계승의 대상이 고구려에서 백제로 전환되었을 뿐 후백제 또한 신라를 부정하면서 군사적 정벌의지를 강화해 가던 상황이었다. 전쟁의 양상은 궁예정권이 후백제의 주공로에 직접적인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충청권역을 확보함에 따라 양국 상호간 팽팽한 대치 국면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쟁적·장기적 대결구도의 흐름 속에서 후백제의 신라 대야성 공략이 선행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인접한 나주 일대에 대한 후속적인 공략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후백제의 신라와 서남해안 지방에 대한 정벌은 보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군사적 진출의 돌파구를 모색하던 궁예정권에게 나주는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해상력을 이용한 진출이 가능하였고, 확보시에는 왕도와 지방간 해상운송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경제·군사적으로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춘 곳이었다. 인적인 측면에서도 나주는 武州를 중심으로 한 내륙지방과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지역민의 독자성이 강하게 잔존하는 한편 반후백제적인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더구나 불과 얼마전 후백제의 나주 연변 부락에 대한 공략은 후백제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일층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궁예정권의 나주진출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나주진출 직후 공예정권은 안변척경책을 논의하였다. 이 방책에서는 후백제와 접하고 있던 변경지대에 대한 안전한 방위와 영토를 넓히기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수군력에 기반한 수군전략은 물론 보기병력에 기반한 육군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이 수립되었다. 전략의 실행은 육군전략을 중심으로 한 지상작전을 중심으로 신라와 접경한 죽령지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접한 후백제의 대응과 도전으로 지상군에 의한 신라정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예정권은 기왕에 수립하였던 수군전략으로 전환하여 해상작전을 추진하였고, 서해안 지방에서 실행된 해상통제전은 그것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이 과정에는 공예정권은 조직적인 수군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로 水壇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해상통제전은 왕건을 수군을 총괄하는 해군대장군에 임명하고 해상작전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나주 인근의 주요 해역과 수로에 전함을 배치하여 첩보망을 형성하고, 인근의 연해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획득하여 후백제와 해상세력의 활동을 차단 및 통제하는 전술이었다. 왕건이 수행한 해상통제전은 대외군사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효과로 나타났다. 후백제의 대중국 외교루트를 차단하였고, 독자적인 해상세력을 척결하면서 공예정권의 지배력을 새로이 침투시킬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후백제의 해상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대규모 해전인 덕진포해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덕진포해전은 왕건합대가 열세적인 전력 하에서 승리를 거둔 해전으로,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준비된 해전이었다. 왕건은 전장 해역의 조류와 바람에 관한 기상정보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전투를 벌이는 단계에서는 밀집대형 위주로 진형을 편성하여 공격력의 집중을 도모하였으며, 과감한 돌격과 화공전을 감행함으로써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해전은 후삼국의 대치구도에 정세변화를 수반하였다. 공예정권이 서해안 지방에 진출하여 그 지배력을 확대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민들의 향배는 유

동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전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서해안 지방에 대한 해상권을 완전히 확보하면서 나주지방에 대한 지배력 또한 확고한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영역적으로도 후삼국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후삼국의 정세를 주도하게 된 것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5. 9. 20, 심사완료일 : 2005. 11. 18)

주제어 : 궁예정권, 나주, 수군전략, 해상통제전, 덕진포해전

K C I

&lt;ABSTRACT&gt;

## The *Naju* Advancement of *Gungye* Regime and Its Naval Activities

Shin, Seong-ja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Naju*(羅州) conquest and naval operations of *Gungye*(弓裔)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war history. Previously there were some works on *Hojok*(豪族) who directed the social changes during the *Silla*(新羅)-*Goryeo*(高麗) transitional period and the formation of *Goryeo* dynasty, with focus on military operations. However, substantial number of those gave their attention to *Wang Geon*(王建)'s *Goryeo* foundation and his naval activities, thereby failing to illuminate the issue of marine operations undertaken during the *Gungye* regime. Such question promoted the construction of this paper.

The treatise is divided into three chapters.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political and military backgrounds of *Naju* advancement of *Gungye* regime. Some of the backgrounds were attributed to *Silla*-oriented military operations from its early times, stereotyped invasion lines in central Korea, friendly embracing of *Naju* people, and *Naju*'s strategic values. Chapter three was comprised of the contents of post-*Naju* domination naval plan after A.D. 903 and the pattern of sea-blocking campaign of the navy based on that plan. These factors led *Gungye* regime to check the foreign and military designs of the *Later Baekje*(後百濟) and simultaneously expand its sea dominance on the west coast of Korea.

Chapter four studied the sea-battle significance of *Deokjinpo*(德津浦),

which was the crucial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powers of *Gungye* and *Later Baekje* and also was generated from *Gungye* regime's expansion of sea power. As a result of *Deokjinpo*, *Gungye* regime was able to completely dominate the southwestern sea of Korea and took full control of the development of events in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Later Baekje*, on the other hand, was obliged to alter its military weight from the navy to the army, as the loser of *Deokjinpo*, so as to ultimately losing its chance for national supremacy. The importance of *Naju* region continued to beckon *Wang Geon* even after he removed *Gungye* from power, to the day when *Gyeonhwon*(甄萱) used the *Naju* route to seek asylum to *Wang Geon*. This incident became the primary factor for ultimat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 Therefore, *Naju* advancement and naval operations by *Gungye* regime eventually became the solid foundation for the unification.

Key Words : *Gungye* Regime, *Naju*, Naval Forces, Naval Strategy, Battle of the Sea Control, Sea Dominance Power, Battle of *Deokjinpo*

K C I